

금융위기 극복·실물경기 회복 협력키로

한일 정상 “일 없을 때도 자주 만나자” 셔틀외교 복원 6자 통한 북핵해결 재확인...日, FSF 한국 가입 지원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 간의 12일 서울 정상회담은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 시절이던 작년 7월 일본의 중등교과서 해설서 독도영유권 명기 강행으로 전면 경색됐던 양국 관계가 같은 해 9월 아소 총리 취임 이후 서서히 해빙무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실질적 관계정상화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양국 외교당국자들은 이번 정상회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아소 총리간 양자 정상회담은 이번이 3번째지만 상대국에서의 정상회담은 처음인 만큼 양국이 앞으로 본격적인 협력관계로 나아가지 않겠느냐는 기대에 서다.

실제 양 정상은 1시간에 걸친 이날 회담에서 금융위기 및 실물경기 극복 공조를 포함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증진, 대학생 교류를

비롯한 문화 및 인적교류 확대, 북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 아프가니스탄 재건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확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양 정상은 지난해 4월 합의한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관계를 재확인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바탕 위에 서로 이익이 되는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만나 현안을 협의키로 해 '셔틀외교' 복원도 공식화했다.

양 정상은 다만 양국 갈등의 직접적 도화선이 됐던 독도 영유권 문제나 일본의 독도 주변 해역 조사 문제는 공식 의제에서 제외하고 서로 언급도 자제했다.

양 정상 모두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부가 작년 12월 지정한 구미 등지의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일본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국제경제와 관련해 금융위기 국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가 12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복 공조를 위해 올 4월 제2차 런던 G20 금융정상회의를 앞두고 금융시스템 개혁, 거시경제 정책 공조, 보호무역주의 대처 등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고, 아시아 역내 상호자금 지원체제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을 확대하며, 우리나라의 금융안정화포럼(FSF) 가입을 위해 일본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

뤘다.

지난해 12월 베이징 6자회담 3차 수석대표회의가 성과없이 끝나면서 6자회담이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양 정상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계속 인내심을 갖고 공동 노력키로 했다. 이는 위기에 처한 6자회담의 동력을 계속 살려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이스라엘 “3단계 작전 돌입...마무리 단계” 하마스 “휴전 긍정적...조속히 전투 끝내야”

‘가자 전쟁’ 언제 끝나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에 나선지도 12일 17일째에 접어들었다.

이스라엘은 지난 11일에도 가자지구 예비군 병력을 투입, 하마스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이른바 '3단계 작전'이 개시된 것.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내 하마스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공습을 1단계로, 지상 공격을 2단계로, 병력 증파를 통한 지상 작전의 확대를 3단계로 각각 설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이 3단계 작전에 돌입함으로써 이번 전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 지도부의 발언에서도 이번 전쟁이 종반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는 11일 전쟁의 목표가 거의 달성됐다고 이례적으로 밝혔다. 올메르트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이스라엘이 애초에 설정

한 전쟁의 목표들에 다가가고 있으나 이들 목표에 도달하려면 더 많은 인내와 결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휴전 논의도 활기를 띠고 있다. 이스라엘은 휴전 중재국 이집트에 실무협상을 재차 파견키로 했으며, 이스라엘의 파상 공격으로 수세에 몰린 하마스도 유엔 결의를 거부한다고 밝히면서도 이집트에 대표단을 파견, 휴전안을 논의하고 있다.

메나 통신은 휴전협상을 담당하는 오마르 술레이만 이집트 정보부장과 하마스 대표단의 휴전 논의가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시리아에 근거지를 둔 하마스 지도자 2명과 가자에서 파견된 하마스 관리 3명이 협상에 참석했으며 하마스 대표단은 가능한 한 조속히 전투를 끝내야 하는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팔레스타인인 수는 어린이 275명을 포함해 885명에 이르고 부상자는 3천700명에 달한다. 군사작전이 확대되면서 이스라엘 측의 인명 피해도 늘고 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병사 10명과 민간인 3명이 숨졌으며 154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시의원 명예훼손’ 여성단체 회원들 무혐의 처분 김월출 의원 “수긍 못해”...공방 2라운드 예고

광주시의회 김월출 의원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해 김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된 광주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김 의원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여성단체와 김 의원 간 공방 2라운드 가 전개될 전망이다.

광주여성단체연합 등 광주·전남지역 5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성폭력 의혹 광주시의원 사퇴 및 성평등 의회 만들기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2일 광주 여성의 전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의원

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여성단체 회원 4명이 지난 6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김 의원이 자중하고 스스로 손해배상소송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광주시의회는 의원윤리 조례 등에 성평등 교육에 관한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준비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예훼손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

“해머가 민주주의를 때렸다”

李 대통령 라디오 연설서 ‘폭력 국회’ 맹비난

의 오늘 연설은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국회"라면서 "정치가 이런 식이어서는 경제살리기도 어렵다는 인식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외 언론을 통해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한 보도를 접한 뒤 상당한 충격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연설 첫머리에 해머와 전기톱이 등장한 국회 폭력사태에 대해 "국회에서의 폭력은 한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한국 특유의 거친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논평한 외국인들을 소개하며 "어떻게 이런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국제적 경멸이 대상이 되다니 대통령으로서 정말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또 "회의실 문을 부수는 해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때리고 제 머리와 가슴을 때리는 것 같이 아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선진일류국가는 결코 GDP(국내총생산)만 올라간다고 이를 수가 없다"면서 "정치의 선진화가 따라가지 않고 국력이 높아지지 않으면 선진화는 불가능하다"고 정치권을 직접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국민앞에 다시한번 저의 결심을 다지고자 한다"면서 "금년 한 해 저는 이념이나 지역을 떠나 경제를 살리고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오늘은 당당한 '경제위기' 만큼이나 심각한 '정치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는 말로 올해 첫 라디오연설을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첫 라디오연설 이후 줄곧 경제문제를 거론하며 국민적 단합을 당부하던 때와는 목소리의 무게도 달랐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연설 내내 "참으로 놀랐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자심한 듯 최근 국회 폭력사태를 신랄하게 비판, 정치권 논란을 예고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

www.kimyoung.co.kr

그동안 12만 5천여명 권입한력!

김영편입학원

2010학년도 편입대비

전남대 집중공략

편입학원 문자상담 010-7768-1234

광주 동부정당사 바로 뒤 10621227-6088

계곡성학 대개강 2월 2일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3 세기스타-세기보청기

1188-8480 / 010-222-0100

www.segiboclear.com